

진달레제



종으신 하느님의 축복안에 아름다움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 친교와 나눔을 위한 제 33회 진달레 바자회가 5월 5일 인천 계산동 본원에서 있었습니다.

11시 복지관 숲속마당에서 인천교구 이학노 몬시뇰 주례 미사로 무르익은 바자회는 수녀들이 정성들여 직접 만든 공예품과 반찬과 음식, 환경코너,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코너등이 마련된 바자회는 일찍부터 소박하지만 활기찬 장터가 되었습니다.

연휴의 귀중한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변함없이 멀리서도 찾아와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